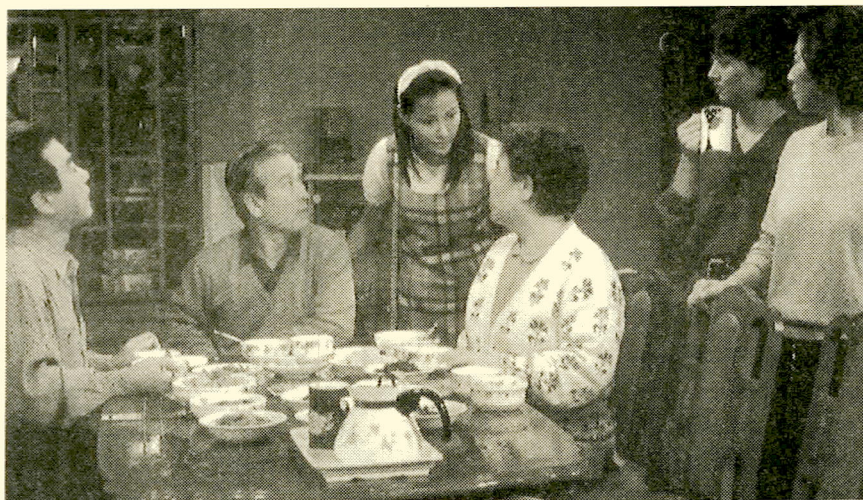


가족, 사회책임이다(3) - 아버지

흔들리는 초상들,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

'회사인간의 속도경쟁' 성찰없는 '컴백홈'은 일시적 거품



아버지시대 복권은 해결책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속도경쟁에 대한 반성이 있을 때 발전적인 아버지상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주말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의 한장면.

몰어진 산업화 과정에서 끊임 없이 '회사인간'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아야 했던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빈자리를 채 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의 달에 열풍같이 불었던 아버지들

망을 걸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없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손승영(사회학 박사) 연구원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손 연구원은 사회전체가 아버지의 자리찾기를 '남자위치 찾아주기'로 곡해하고 있다고 전한다. 진정한 아버지상에 대한 모색이 상실된 부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아버지시대를 재건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드러나는 아버지들의 구멍은 결국 끝없는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요. 남성의 사생활을 차압하는 강압적인 직장문화와 조직사회에 대한 반성이 없는 한 아버지들의 '가정으로' 선언은 일시적인 거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가장 개인들의 노력에 의지하는 것은 단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와함께 아버지들의 '컴백홈 열풍'이 놓치고 있는 것이 또하나 있다. 어머니의 부재가 그것이다. 앞서 열거한 '좋은 아버지가 되는 20계명'에도 아버지와 자녀관계만 뽕뽕 그려 표현되고 있을 뿐 어머니와의 공조관계를 모색하는 언급은 없다.

춤추기의 파트너도 아버지고, 여행도 엄마, 아빠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가 하는 여행이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어머니에게도 기형적인 부모 역할을 강요해 왔다면 어머니에 대한 담론으로도 표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쉽게도 어머니는 없고, 극단적인 분리주의라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좋은 아버지운동이 자칫 아버지시대 탈환이라는 엇나간 복고운동으로 변할 수 있다는 혐의를 받게 하는 대목이다.

언론의 남성중심적 보도는 한층 더하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 얼마전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하는 사위를 살해한 할머니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때마침 여성단체가 마련한 긴급공청회가 있었다. 그러나 공청회 보도는 동정보도 수준에 그쳤다.

반면 소외감을 느끼는 가장이 늘고 있다는 세대분석보도는 '남성의 전화'를 부각시키며 기획보도로 내보냈다. 시간적인 안배에서도 편파가 심했지만 문제는 내용이다. 남성들도 고통받고 있으며, 심지어 매 맞는 남편도 있다는 내용이었

다. 물론 타당하다. 그러나 상단을 호소하는 남편, 매 맞는 남편에 대한 언론의 이 민첩한 반응은 그간 언론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묵인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속도 경쟁에 대한 반성이 우선

'부권 상실의 세대'. 분명 오늘의 아버지세대는 절망적이다. 더이상 이전의 아버지에게서 묵시적으로 전수받았던 아버지역할이 통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아버지상 만들기는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손 연구원은 이렇게 말한다.

"자각한 소수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밀림에서 살아남기' 경쟁문화를 바꿔야죠. 정부나 개별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내용에 '아버지훈련'을 포함시키는 등 아버지들에게 사회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개별 가정에서의 민주적인 관계회복도 병행되어야 하겠죠요."

자나깨나 국가경쟁력을 부르짖고, 경쟁상대를 찾는데 혈안이 된 모습이 우리의 초상이고 보면 속도경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또다시 미뤄질 지 모른다. 그러나 '30년에 3백년을 산 사람이 어떻게 자기자신일 수 있겠느냐'는 한 시인의 화두가 진정으로 공감대를 얻을 때, 그리고 그것이 발전적인 담론으로 확산될 때 우리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은 극복될 수 있고 아버지들의 자리매김은 가능할 것이다. 그 과제는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단체, 가정 모두의 몫이다.

(손정미 기자)

좋은 말을 먼저 하라
좋은 일을 흉내내 보라
좋은 일은 이웃과 함께 나누라

'좋은' 생활지침이다. 평범하지만 행하기는 정말이지 쉽지 않은 문구들이다. '파편화'로 압축되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선언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을 모아놓은 이유가 뭘까.

자녀 앞에서 부모님 흉을 보지 말라

자녀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하라

자녀가 원한다고 다 해주지 말라

자녀를 남과 비교해 말하지 말라

이쯤되면 이상이 이번 5월에 유난히 부각됐던 좋은 아버지들의 '컴백홈 선언'임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 먼저, 일은 그 다음'이라며 흔들리는 가장들의 초상을 곧추세우려는 아버지들의 가정복귀선언 말이다. 아버지들은 늦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자며 '좋은 아버지가 되

는 20계명' '가족이 함께 활동 20' 등의 실천지침을 발표, 주목을 받았다.

아버지들의 컴백홈선언

아버지들의 이런 자구책은 사실 꽤 '웬창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91년 말 평범한 아버지 10여명으로 시작한 '좋은 아버지 모임(운영위원장 나원형)'이 5년 만에 수도권 지역에서만 1천1백여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부산, 목포, 인천 등에는 지부를, 지방도시 10곳에서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거기다 최근에는 아버지도 임들이 연합해 '아버지모임 전국연합(회장 이재택)'을 만들었고 '딸딸이 아빠네' '한울타리가족' 등 소규모 아버지모임도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일단 '아버지 없는 사회'를 자각하고, 이제 가장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명제를 실감한 아버지가 적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가 허

의 '컴백홈 선언'은 그것이 아버지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건, 교육지책이었건, 아니면 적극적인 변화의 몸짓이었건 적어도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가치관의 변화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자녀 관계만 강조 '아버지 훈련' 등 사회적 교육 제공해야

더구나 지난해 '간 큰 남자'가 허약한 자의식을 가진 남성들의 왜소증을 이용해 '남자 기죽이는 여자를 기죽이는' 비열함을 드러낸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들의 '컴백홈 선언'에는 진지한 반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실체를 더듬어 보자.

"분명 과거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상은 깨지고 있죠. 하지만 변화한 아버지상이 단지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의 몸짓은 소중한 것이지만 소수의 변화에 전체 회

아직도 저변문화가 직장인의 연장인 아버지들의 정형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컴백홈 선언'은 아버지들을 또한번 절망하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 태혜숙(효성여대 영문학) 교수의 주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버지시대 복권이나 아버지, 어머니의 단순한 자리바꿈은 더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이익만을 쫓아온 자본주의사회의 속도경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조직사회 가치체계에 면역이 되버린 아버지들의 성찰이 우선이죠. 이런 성찰없이 무조건 가정복귀를 외치면서 개별